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0. 12.(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0월 12일(월)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의원	김동호	☎044-300-7180

[202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테크밸리 입주 업종 확대 · 생활편의시설 규제 개선 촉구

- 12일 경제산업국 행감서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 재검토 요구 -

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동호 의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테크밸리의 입주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용지 내 생활편의시설과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와 직접 연관된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현행 기준에 대해,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행정기관이나 기업 협회 등의 기능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400명의 인원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 규모를 언급하며, 업종 코드 제한이 기업과 기관 유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에서 입주 대상 확대를 적극 주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인 생산·산업 활동에만 한정하지 말고, 보완적인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종 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입주 허용 범위를 폭넓게 협의하고, 시가 관계기관에 적극적

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상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10% 미만의 비율을 높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돼 왔으며, 관계기관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상향 수준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현동 인근의 편의시설 부족과 C7·C8 전용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복합용지 내 편의시설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의 제한 요건과 함께 주변 생활권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와 복합용지의 환경을 구분해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용지의 안전상 제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상가와 유사한 환경의 복합용지까지 같은 논리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원 입주에 따른 위험과 학원 입주가 제한돼 어린이들이 다른 생활권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의 위험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현동 학생들의 학원 차량 이동 부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 협의에서 생활권 밖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도 검토 근거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복합용지 내 어린이 학원 입주를 제한하기보다, 공간별 여건과 주민 수요, 어린이 이동 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